

Counter-trade가 國際石油市場에 미치는 영향

金鳳基
雙龍精油 業務部

Counter-trade가 國際石油市場에 미치는 影響

1. Counter-trade의 概念

Counter-trade가 國際去來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石油去來에 도입된 것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거래형태가 非石油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기 거래나 東西 무역에서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Counter-trade 거래의 근원은 世界經濟恐慌이 발발했던 1930년까지 외환부족으로 수입대전을 결재할 수 없어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안적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Counter-trade이다.

Counter-trade는 바터, Counter-purchase, Buy-Back, offrets 등 제거래 형태를 포함한다. 이들은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래 쌍방간에 상품을 직접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美商務省은 Counter-trade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one in which a seller provide a buyer with deliv-

eries and contractually agrees to purchase goods from the buyer equal to an agreed percentage of the original sales contract value”

위에서 언급한 여러 거래에는 반드시 현금이 배제된다. 다만 때때로 발생하는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청산계정을 계약의 한부분으로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2. 石油去來에 도입

1983년에 접어들어 국제石油시장에 공급과잉 현상이 만연되자 OPEC(石油輸出國機構) 산유국들은 잃어가는 市場占有率을 확보키 위해 Counter-trade에 뛰어 들어 빈번히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石油 공급과잉 현상이 도래한 것은 첫째 70년대 2차례의 石油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소비구조가 변화되어 많은 部門에서 石炭·水力 및 原子力 등이 石油을 代替하게 되었다는 점, 둘째 에너지 사용에 효율성이 증대되어 미국을 포함한 OECD 지역에서 연료절약형 소형자동차가 출현, 石油사용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1973년 石油禁輸조치가 발동되기 전 美國 승용차의 평균 연료효율은 갤론당 13.1마일이었다. 그러나 1982년에는 16.3마일로 증대되었으며, 1985년에는 27.5 마일로 늘어났다.

한편 70년대 石油위기는 OPEC외지역 油田개발에 박차를 가해 北海, 멕시코 등에서 탐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 1974년의 산유량이 70만B/D였던 이곳들로부터 석유 생산량은 1984년에 이르러 약 630만B/D로 대폭 증가 되었다. 또 OECD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침체로 에너지 수요는 계속 하락되는 추세에 있었고, 石油會社들의 대대적인 備蓄在庫 방출로 국제 石油시장의 공급과잉현상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결과 OPEC의 석유 공급량은 1973년 최고 3100만B/D에서 1985년 5월에는 약 1,480만B/D로 반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OPEC의 경상계정은 1980년 최고 1,050억달러 수준의 흑자에서 1983년 186억달러의 赤字로 전락하여 1974년 이래 계속 흑자를 유지해 오던 OPEC로서는 커다란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이 통계를 개별 국가별로 보면, 더욱 심하다. 몇몇 국가들은 아주 오랫동안 赤字현상을 감수해야만 했고, 1970년대에 立案했던 대규모 개발계획을 축소조정해야만 했으며, 감내키 어려운 긴축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서 OPEC가 가장 우려한 것은 급감된 OPEC 石油수요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北海의 산유량이 1980년대 후반 혹은 1990년

대초에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OPEC로서는 70년대와 같이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나에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수 없다. 예를 들면 代替에너지 개발에 대한 진척은 물론 中共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탐사개발동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 OPEC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잠식될 전망이다. 이러한 불안감에서 OPEC 산유국들은 非OPEC에 빼앗긴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감소된 石油販賣收入을 보전키 위해 Counter-trade라는 변칙거래를 하게된 것이다.

3. Counter-trade의 經濟的 측면

OPEC는 전통적으로 장기계약으로 原油를 생산·수출하여 왔으나 실제적인 原油마케팅에 다른 형태의 판매방법도 아울러 사용해 왔다. 최근들어 스파트거래 및 스파트시장 연동거래가 늘어났다. 더우기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등 몇몇 OPEC 산유국들은 그들의 조업범위를 下流部門까지 확대, 베네수엘라의 경우 1982平 西獨의 루르오일社(Ruhr Oil)의 주식을 50% 인수하였는가 하면, 쿠웨이트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비롯한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 下流部門 시설을 매입하여 진출하였고, 인도네시아는 日本 및 美國서해안의 下流部門 시설에 利權을 확

〈表-1〉 OPEC 産油國의 추정 경상収支

(단위: 100萬달러)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알 제 리	572	-1,682	-904	-2,321	-3,658	-1,639	225	80	-171	-310
에 과 도 르	22	-239	-30	-377	-730	-654	-672	-1,027	-1,215	-128
가 봉	142	-51	-94	-33	37	212	350	372	285	37
인 도 네 시 아	548	-1,136	-923	-74	-1,428	950	2,810	-816	-5,458	-6,422
이 란	12,299	4,725	4,737	5,090	1,499	6,110	-4,599	-2,737	3,580	3,468
이 라 크	2,855	2,971	2,627	1,025	3,254	10,823	11,548	-9,534	-13,678	-7,315
쿠 웨 이 트	9,066	6,722	7,152	5,440	6,929	14,789	16,159	14,675	5,662	5,262
리 비 아	2,769	556	2,989	2,861	1,590	4,066	8,285	-2,894	2,978	-650
나 이 지 리 아	4,905	57	-368	-1,014	-3,766	1,703	4,413	-5,655	-7,287	-927
카 타 르	1,720	1,190	1,165	631	861	2,070	3,212	3,069	1,169	410
사우디아라비아	24,040	17,512	17,683	15,891	1,689	14,669	46,904	44,064	7,655	-19,433
U A E	3,974	2,878	3,413	2,904	2,134	6,070	11,582	10,270	-4,222	4,903
베 네 수 엘 라	5,824	2,201	317	-3,127	-5,699	369	4,749	4,026	-11,804	2,500
計	68,736	35,704	37,769	28,889	2,811	59,538	104,966	53,893	-11,804	-18,625

〈자료〉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1983

보했다. 또 사우디 아라비아는 Mobil, shell 및 Petrola 등과의 합작으로 수출용 精油工場을 건설함으로써 消費地 精製會社들을 놀라게 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OPEC가 1973-74년에 획득한 石油市場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려는 점진적인 조치이며, 石油産業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石油市場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下流部門에 진출은 그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때 제품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이때는 몇몇 OPEC 산유국들은 줄어든 자국산유량 쿼터도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던 때였다. 어떤 형태로든지 下流部門에 진출지 못한 몇몇 산유국은 代案의 방법으로 Counter-trade 및 이와 유사한 무역거래로 공급과잉 사태에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알려진 Counter-trade의 실례를 들어보면, 1984년 사우디 아라비아와 美國 보잉社와의 항공기去來(이去來에 의해 사우디는 原油 3,400萬배전과 10대의 보잉747-300수송기와 교환했음), 나이지리아와 브라질 및 프랑스와의 거래 등이 있고, 이밖에 PIW는 Counter-trade를 하고 있는 산유국으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및 아부다비를 들고 있다. (PIW 1983, 9. 10 자 및 1984. 2. 20자 참조).

또 최근에 이루어진 Counter-trade로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英國간에 체결된 Tornado와 Hawk 항공기購買계약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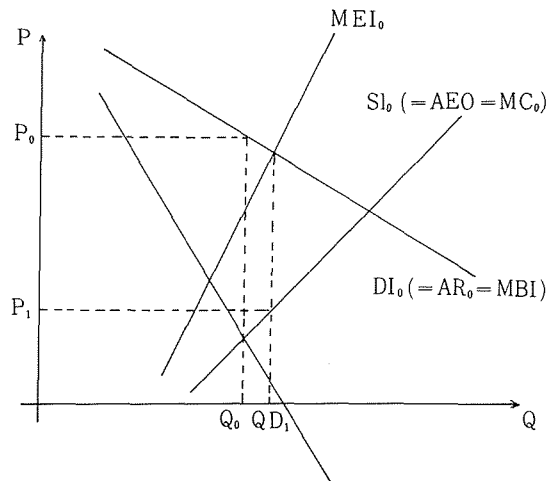
OPEC 산유국들은 시장의 침체로 유발된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극소화 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불항하에서의 Counter-trade는 반드시 가격할인이 있기 마련이다. 카르텔 理論에서 볼 때, Counter-trade는 가격할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카르텔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더우기 이와 같은 OPEC 산유국의 가격할인 사례는 단속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카르텔인 OPEC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총회가 열릴 때마다 Counter-trade에 관해 노골적인 성토가 벌어지나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70년대에 산유국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구가했던 선진공업국들은 80년대에 접어들어 그들의 대고객이었던 산유국들의 소득감소로 자국이익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失業이 사상 최고수준에 달하게 되어 곤경에 처하게 되자 次善策으로 Counter-trade에 뛰어 들게

되었다. 한 예로 사우디와 英國간에 체결한 항공기거래는 英國정부에 의해 고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받게 되었다. 이거래로 英國은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약 30萬名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Counter-trade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이 들어났다. 美國 재무성이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美國회사들이 Counter-trade에 참여하게 되는 주요이유는 국내의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Counter-trade에서 價格이 결정되는 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그림 1-a>는 현재와 같이 石油市場이 침체상태에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그린 것이다. 여기에서 편의상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하기로 하자, 즉 하나의 산유국(OPEC)과 하나의 선진공업국(OECD)만 있어 쌍방독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자는 초과능력이 있기 Counter-trade로 인한 추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자. D_1 는 Counter-trade 하의 선진공업국의 수요곡선인 동시에 산유국의 平均收入곡선(AR_0)이기도 하다. 또 이것은 原油구매자가 받게되는 限界利益곡선(MBI)이기도 하며 限界收入生産物(MRP)라고볼 수도 있다 (미시經濟學참조). 이 平均收入곡선(AR_0)에 대한 限界收入곡선이 MR_0 인데 이것은 AR_0 보다 밑에 있다. 선진공업국이 직면하고 있는 原油공급곡선은 SI_0 인데 이것은 平均原油 조달비용 곡선이기도 하다. 이에 대

<그림 1-a> 双方独占에서 Counter-trade의 가격결정



한 한계지출 비용곡선은 MEI_0 이다. 여기에서 產油國이 직면한 공급곡선은 바로 한계비용곡선 MC_0 가 된다. 이것은 어떤 산유국도 현재와 같이 Counter-trade가 빈번한 시장침체기에는 독점가격에 접근하도록 가격형성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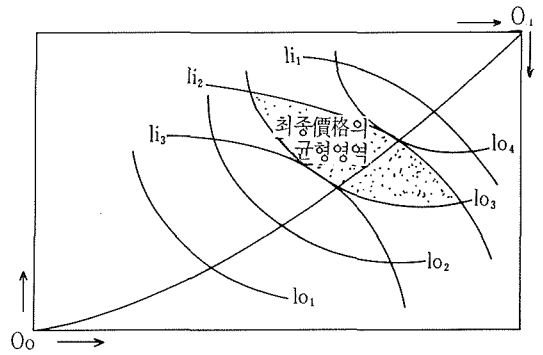
쌍방독점 모델에서 가격이 균형되는 코스는 존재치 않는다. 산유국은 교환가격 P_0 로 Q_0 만큼의 原油를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한다. 이 경우 가격과 수량은 MC_0 와 MR_0 가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한편 선진공업국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QD_1 만큼의 原油를 PI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한다. 이 경우의 가격 및 수량은 MEI_0 와 MBI_1 가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미시經濟學 참조) 따라서 실제로 원유가 거래되는 가격은 PI 에서 P_0 에 이르는 어느 점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을 (그림 1-b)의 Boxdiagram에서 설명해보기로 한다. O_0 와 O_1 는 산유국과 선진공업국의 생산과 소비의 원점이며 그림에는 산유국의 등량曲線과 소비국의 無差別曲線이 지도화 되어있다. 반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그림 1-a)의 $P_1 - P_0$ 의 가격범위이며, 이곳의 어디엔가에서 최종적으로 균형가격이 성립된다. 최종적으로 어느 점에서 價格이 결정되느냐는 여러가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양자간의 협상기술, 상대방설득 및 제압능력 등이 가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1979-1980년 기간과 같이 國際石油市場의 逼迫時에는 Counter-trade가 산유국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진다. (그림 1-a)에서 시장이 팽박해지면 수요공급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시장여건에 적응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그림-2)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균형교환가격은 가능하면, P_0' 수준에 접근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기간동안 OPEC 산유국들이 公示價格에 할증료를 부과한 여러 사례에서 충분히 증명된다. 산유국 들은 또 소비국들에 정기적인 原油를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質이 나쁜 重質原油를 끼워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요사이와 같은 Counter-trade는 없었다. 왜냐하면 OPEC는 기존 무역수준으로 輸入代錢을 지불할 충분한 石油달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2년 이후 석유시장은 購買者市場(Buyers' Market)으로 변하자 풍부한 石油달러로 높은 생산수준을 구가했던 산유국들은 石油販賣收入이 줄어들어 이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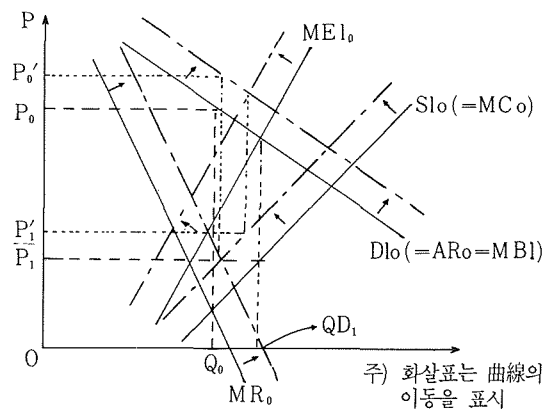
(그림 1-b) 双方独占에서 Counter-trade의 가격 결정



은 소비수준을 지속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즉 소득은 줄어 들었는데 소비는 이와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經濟學에서 말하는 恒常所得假說 및 라이프 사이클 假說이 증명되는 경우이다.

1970년대의 高油價時代에 가능했던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代案的 方法이 Counter-trade라고도 할 수 있다. 산유국과 거래하는 많은 회사들은 많은 경우 石油關係業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中介人을 통한 구매등으로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회수하려고 이들은 산유국에 수출하는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石油價格을 상대적으로 할인한다. 따라서 石油와의 交換價格은 선진국의 극대이윤을 확보해 주는 가격하한선인 P_1 에 접근하게 된다.

(그림-2) 쌍방독점하에서 Counter-trade의 가격결정 (시장팽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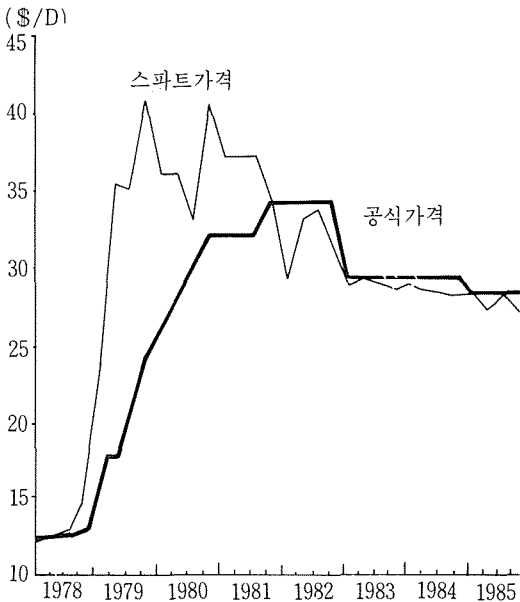


双方独占 모델에서 1-a의 최고 上限價格 P_0 는 1985년 7월 배럴당 28달러였던 아라비안 라이트 原油의 OPEC 公式價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최저 下限價格 P_1 는 당시 同原油의 스파트 가격이었던 27.10 달러로 볼 수 있다. 사실 P_1 는 앞에서 언급한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스파트 가격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시장이 팽박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산유국들은 공식가격보다 높은 스파트 시장가격으로, 즉 그림 2에서 P_0' 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그림 3은 아라비안 라이트 原油의 公式 및 스파트 가격의 변천과정을 분기별로 보여주고 있다.

4. 短期的 競爭手段으로서의 Counter-trade

Counter-trade는 지금까지 OPEC 산유국들이 빈번히 사용하여 왔을뿐, 비OPEC 산유국들은 멕시코의 약간을 제외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英國과 노르웨이등은 原油판매수단으로 Counter-trade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것은 非OPEC 산유국들은 엄격한 산유량 및 가격구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3) 아라비안 라이트 가격변동 추이



(자료) PIW Petroleum Economist

그들은 산유량 極大化 政策 노선을 걸으며 시장이 침체 상태인데도 산유량은 생산능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오랫동안 OPEC에 편승하여 이익을 누려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OPEC 홀로 石油市場 안정을 위한 감산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OPEC의 감산여력이 거의 한계에 왔기 때문이다.

OPEC 산유국들은 Counter-trade를 함으로써 두가지 목적을 수행할 수가 있다. 첫째 엄격한 가격구조를 회피하고, 둘째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장점유율 확보경쟁의 유형은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OPEC 회원국간의 경쟁으로 下流部門에 진출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간의 경쟁이고, 또다른 類型은 同質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산유국들과 北海산유국간의 시장확보 경쟁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와 英國간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Counter-trade 거래에서는 나이지리아쪽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나이지리아는 개발도상국이고 英國은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방국들의 交易文化는 自由放任主義에 기초하고 있어 페어플레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英國에서 바터교역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 개발도상국이 Counter-trade로 바꾸기를 원하는 물품과 產油先進國(英國)이 바라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프랑스나 브라질과의 거래에 있어서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프랑스의 幼兒食品(Baby foods)이나 브라질의 電子製品과 바꾸기를 희망하나 英國은 現金去來를 더욱 선호하고 있어 인센티브는 개발도상국에 있다. 또 英國과 나이지리아가 Counter-trade 형태의 貿易戰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英國의 경우는 많은 石油會社가 결정을 해야 하나 OPEC 국가들은 정부가 石油관련 문제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쟁적 優位는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단 非OPEC 산유국들이 그들의 시장점유율이 OPEC 국가들이 Counter-trade貿易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차리게 되면 그들은 가격할인으로 이미 대응하게 되어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격할인 정책을 취하게 되면 여하한 카르텔이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격할인은 카르텔에 있어서 「아킬레스 踵」(Achilles' heel)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산유국들은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

해 할인판매에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OPEC 개개 산유국에 대한 Counter-trade의 잇점은 短期 또는 中期에 그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가격하락으로 '이 폭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非OPEC의 現生産 및 가격정책은 Counter-trade를 앞으로 얼마동안은 용납할 것이다.

5. OPEC 산유국들의 Counter-trade 와 石油市場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Counter-trade가 石油市場에 미치는 영향은 OPEC의 가격구조를 와해시킨다는 것이다. 만일 스파트 가격이 Counter-trade 거래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OPEC의 가격결정 기능은 유명무실해져 자유경쟁시장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에서 OPEC의 거래역할이 의심스러워진다. 石油市場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OPEC와 같은 조직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一般論이다.

OPEC 산유국들의 產油割當量이 도입된 것은 1982년 이후부터였다. 問題는 Counter-trade로 거래되는 石油全量이 전체 산유량에 계산되고 있는냐이다. Counter-trade를 통해 판매되는 石油만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OPEC의 石油수요는 감소된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아마 별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몇몇 OPEC 회원국들은 할당량 조차도 수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下流部門에 진출하지 못한 나라는 Counter-trade 거래량을 下流部門 진출산유국들의 製品販賣量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점에 관해서는 PIW도 지난 해 7월 지적했다.

또 하나의 Counter-trade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구매자들은 Counter-trade 거래가 가격조건상 유리할 경우 原油의 공식거래에 있어서 이와 대등한 가격조건을 요청하게 된다는 점이다. 價格差別化가 유효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石油市場은 이러한 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만일 산유국이 구매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모든 石油市場에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OPEC가 Counter-trade를 조절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몇몇 산유국들이 Counter-trade를 그들의 現 經濟難局을 타개하는 代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개 회원국들은 모든 產油國들이 Counter-trade 거래에 참여할 때까지 同去來를 계속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분석은 非OPEC 산유국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전체적인 가격구조가 어떻게 되던지간에 OPEC 산유국들은 非OPEC 산유국들이 OPEC의 減產政策에 협조할 때까지 Counter-trade 거래를 계속하여 시장점유율을 確保한다는 것이다.

6. 맺는 말

지금까지 國際石油市場에 Counter-trade가 등장하게 된 동기를 살펴 보았고, 雙方独占 모델을 이용하여 均衡交換價格 결정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Counter-trade로 거래되는 石油價格은 시장여건에 따라 변동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식가격이상 혹은 이하에서 결정된다는 것도 알아 보았다. 특히 1982년 이래 계속되어온 市場 沈滯기에 Counter-trade는 公示價格을 저해하는 영향을 끼쳐왔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의 석유가격 결정에 있어 OPEC의 역할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어쨌던 OPEC 산유국들은 비OPEC국에 대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수단으로서, 또 줄어든 石油販賣收入을 만회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Counter-trade를 이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제반 요인을 상정해 볼 때 Counter-trade는 石油市場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게 되고 非OPEC 산유국들이 OPEC에 협조할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Counter-trade 등 할인판매가 성행하면 OPEC의 가격구조는 위태롭게 되어 결국 카르텔로서의 OPEC는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

부정·부패·인플레心理를 追放하자